

# 초기 청소년의 가출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류승희<sup>1</sup> · 박경숙<sup>2</sup> · 서민숙<sup>3</sup>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sup>1</sup>,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sup>2</sup>,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sup>3</sup>

## Factors Influencing Run Away Impulse in Early Adolescents

Ryu, Seung-Hee<sup>1</sup> · Park, Kyung-Sook<sup>2</sup> · Seo, Min-Sook<sup>3</sup>

<sup>1</sup>Ph.D., Candidate,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eoul

<sup>2</sup>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eoul

<sup>3</sup>Doctoral Student,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carried out a preliminary analysis of available literature and used the ecological approach to define a research hypothesis with focus on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variables related to early adolescents' urge to run away. This study also aim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each of these variables in order to build a forecast model showing which variables have more influential on early adolescents' urge to run away. **Methods:** Materials were collected from 433 male and female fifth- and sixth-grade students at two schools in Gyeonggi Province.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SPSS/WIN 18.0. Frequency analysis,  $\chi^2$ -test,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The results indicate that personal factors related to runaway impulse are gender and previous runaway attempts, family-related factor family functionality, and school-related factor the area of stress from study. **Conclusion:** Based on the study results as above,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interventions need to be developed.

**Key Words:** Adolescents, Runaway, Logistic regression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 진행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 중 청소년 가출 문제가 가출의 습관화, 장기화, 저 연령화 현상으로 그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09년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생활 태도 및 가출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 충동은 초등학교 22.9%, 중학교 46.4%, 고등학교 52%가 느낀다고 하였고 가출 비율도 초등학교 3.1%, 중학생 8.1%, 고등학교 12.1%로 학년

이 높아짐에 따라 높아지고 있으며 가출횟수별 가출시기를 볼 때, 초등학교 5학년이 1~3회로 가장 많았다(National Youth Police Institute [NYPI], 2011). 또 2010년 컴퓨터용 청소년 대상 조사에서 첫 가출 연령은 남학생 13.3세, 여학생 13.8세로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남녀 각각 0.1세, 0.7세 낮아진 수치이고, 전체의 44.9%가 13세 이하였고, 이들의 27.2%가 6개월 이상 장기 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Republic of Korea [MOGEF], 2010), 가출 횟수도 6회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Nam, Hong, & Yang, 2007).

가출은 선행요인인 가출 충동으로부터 비롯되는데(Park

**주요어:** 초기 청소년, 가출충동, 로지스틱 회귀분석

**Corresponding author:** Seo, Min-Sook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224-1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156-755, Korea.  
Tel: +82-10-9407-6754, Fax: +82-2-824-7691, E-mail: placebo72@hanmail.net

**투고일:** 2011년 9월 1일 / **수정일:** 2012년 2월 15일 / **게재확정일:** 2012년 2월 29일

& Hwang, 2010) 가출 충동의 정도가 클수록 실제로 가출행동으로 옮길 확률은 높아질 뿐 아니라(Nam, 2001), 가출 충동을 느낀 청소년들이 실제로 가출하는 비율도 높았다(Park & Hwang, 2010). 이처럼 가출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일상에서 참기 힘든 어려움을 느꼈을 때 언제든지 가출이라는 행태로 표현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번이라도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은 반복된 가출문제나 또 다른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Hong, No, & Park, 2010). 따라서 청소년의 가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의 가출 충동 요인을 밝혀내어 그에 대한 개입과 예방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Chung, 2000).

Matchinda의 연구(as cited in Hong et al., 2010)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가출한 청소년들은 생계를 위해 약물 판매, 절도, 강간, 폭력, 집단 가입, 매춘 등의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하였고 Hong 등(2010)은 가출의 결과 임신, 낙태, 성매매, 원조 교제 등의 문제를 일으켜 가해자든 피해자든 범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출은 청소년기에 성취되어야 할 신체적, 심리, 정서적 발달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사회에서 낙오되는 현상이 일어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며(Nam, 2001; Park & Hwang, 2010) 청소년기의 가출은 청소년기가 종료된다고 하여 가출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의 갖가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Oh, 2010) 다른 연령대의 가출보다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인 및 가정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가출은 단순히 몇 가지 요인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며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복잡적이면서도 역동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며(Lee, Kim, Kim, & Chung, 2006),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가출 충동의 영향요인을 크게 개인, 가정, 학교 요인으로 가출의 요인과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Chung, 2000; Hong et al., 2010; Oh, 2010; Park & Hwang, 2010).

청소년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변인들이 청소년의 가출과 관련이 있으며 크게 개인, 가정, 학교, 친구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Oh, 2010). 청소년의 가출은 한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가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 관련 요인은 성별 등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심리적인 개인의 특성이 될 수 있다. 먼저 성별에 따른 가출충동에 대한

결과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Chung & Ann, 2001; Kim & Kim, 2008). 초등학생이 문제요인이 많은 환경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상황에 대해 탄력 있고 강인하게 적응해 나가는가, 즉 개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정하고 믿는가, 자기 유능감과 문제요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가의 자아탄력성에 따라 내면화 문제의 수준이 달라지고 긍정적인 힘이 달라지므로 문제해결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였는데(Park, 2010) 결국 자아탄력성과 자기 유능감은 아동 및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대처하고 작용하여 가출충동을 조절하는 개인 능력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할 수 있다.

청소년의 가출 관련 가정 변인은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심리적, 경제적 요인으로 가출충동이나 가출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의 부부관계를 좋지 않다고 지각한 청소년들의 가출충동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고(Heo, 2009) 부모의 합리적 지도, 애정적 및 성취 지향적 양육태도 시 청소년 가출충동이 낮으며 권위주의적 통제성향과 과보호 성향의 양육태도의 청소년이 가출충동이 높았으며(Chung & Ann, 2001) 부모 감독이 강한 경우와 비행 청소년과의 접촉 시 가출의 충동에 상관없이 바로 가출을 감행하는 경향이 크며 가족 유대, 부모 학대 등 관련 변인들을 간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가출충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Park & Hwang, 2010). 또한 청소년 가출충동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기보다는 가정과 부모로부터 내쫓김을 당하는 축출형 가출충동이라고 하였으며(Nam, 2001) 청소년의 바람직한 적응을 위해서는 가족과 부모의 사랑, 관심, 격려 등의 심리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Kim, 2004).

개인은 친밀한 집단속에서 의사소통과정을 통한 학습으로 비행 동기, 충동, 태도 등을 배우지만 접촉빈도, 기간, 시기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는 차별적 접촉 이론에 비추어보면 청소년들은 단순히 문제 친구를 사귀는 것으로 비행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그들과 꾸준히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행동을 하게 될 기회가 많아진다(Nam, 1999). 실제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 집단의 영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설명의 가장 강력한 변수는 문제행동을 하는 비행 친구와의 친밀도이고 친구의 비행 행동이 많을수록 가출 충동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으며(Oh, 2010) 친구 유대가 강한 청소년일 경우 가출충동을 강하게 느낀다고 하였다(Park & Hwang, 2010).

많은 관련 연구에서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학생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의

사회풍토는 학력을 최우선시하며, 이에 따른 성적등급 및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아동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는 초등학교 아동에게도 가출 충동의 충분한 예측요인이 될 수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가출 충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학업성적이 지적되고 있다(Kim & Kim, 2008; Oh, 2010).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망의 유무는 가출충동과 가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들의 가출 선택을 차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Han, 2008; Kim & Kim, 2008).

이렇듯 가출과 관련된 연구는 많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가출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개별 영향요인을 검증하거나 특정 몇몇 요인들의 영향을 검증하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청소년 가출 충동의 체계적인 설명 및 궁극적 가출 충동 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을 충분히 고려한 생태학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가출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가출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이후에는 가출에 따른 문제나 대책연구가 증가하였다(NYPI, 2011). 최근에서야 약 10여년 동안 진행되는 전체 청소년 시기에서 각 시기별 가출 충동 및 가출원인은 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의 시기별 가출 요인을 분석하려는 연구들이 시도되었다(Jun, Kim, & Hwang, 2010; Oh, 2010). 손 베리의 상호 작용 이론에 의하면 청소년의 초기에 해당하는 11~13세는 아동이 부모의 태도나 가치에 주로 의존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부모의 애착이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는 효과가 뚜렷하다고 했으며 그 후 청소년 중기(15~16세)에는 청소년들의 활동 중심지가 가정에서 학교와 친구 집단으로 점차 이동하면서 청소년들도 부모보다 또래 친구들에게 의존함에 따라 부모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대신에 비행친구의 영향력은 증가한다. 그리고 청소년 후기(18~20세)에는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시기이므로 부모의 영향력은 거의 소멸되고 그 자리에 친구집단의 영향력이 차지한다고 하였는데 이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를 거치면서 초기에는 가족과 부모의 영향력이, 그리고 후기에는 비행 청소년의 영향력이 가출 요인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효율적인 가출 중재를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별 대처 방안이 달라져야 함을 강조하였다(Jun et al., 2010). 그러나 청

소년 가출영역 연구의 대상자는 대부분 가출한 청소년이 대상이고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주로 중기,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며 가출이 시작되는 초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Jun 등(2010)과 Park과 Hwang (2010)의 연구가 있으나 이들 연구 모두 2009년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생활 태도 및 가출 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가출요인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습관화, 장기화, 저 연령화 되고 있는 청소년 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출 문제 행동이 시작되는 초기 청소년의 가출 충동 원인에 대한 탐색과 종합적인 분석 및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가출 충동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개입방법과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첫 가출 연령은 초기 청소년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라는 점과(Jun et al., 2010), 가출 예방을 위한 대처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는 발달적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에도 인지능력이 급성장하는 이 시기가 인지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대처능력 방법을 익히기에 가장 적절하다. 이에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개인, 가정, 학교 요인들 중 가출 충동 영향요인을 탐구하고 확인함으로써 초기 청소년의 가출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가출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개인, 가족, 학교)과 가출 충동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 초기 청소년의 가출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확인한다.

## 3. 용어정의

### 1) 가출 충동

가출충동이란 개인, 가정, 사회 환경의 여러 가지 갈등적 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구하기 위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심리적 상태(Heo, 2009)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가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가의 질문을 사용하여 이에 대한 유, 무에 대해 조사하였다.

## 2) 초기 청소년

청소년 기본법(2010)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GL], 2010), 본 연구에서는 손 베리의 상호 작용 이론을 근거로 하여 경기 지역에서 편의 표집 한 초등학교 5, 6학년을 초기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 3) 주변인

주변인이라 함은 청소년들의 주변에 존재하는 가족환경, 사회 환경 내의 모든 타인을 포함하며(Lee, 2002)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태도나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 친구,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을 통해 추출한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을 중심으로 초등학생의 가출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서 설계모델은 Figure 1과 같다.

## 2.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S시, 그리고 P시 소재의 2개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로지스틱 다중 회귀 분석에서 중간효과 크기( $R^2=.15$ ), 유의수준 0.05, 독립변수 18개를 포함하였을 때 검정력 .95를 유지하기 위한 표본의 수는 213명이었으나 본 연구의 측정변수가 일반적 특성 포함 85문항으로 문항수가 많고 가출과 관련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400~60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상자수를 총 446명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13부를 제외한 433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자아탄력성 (Resilience)

자아탄력성은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개인이 특별한 스트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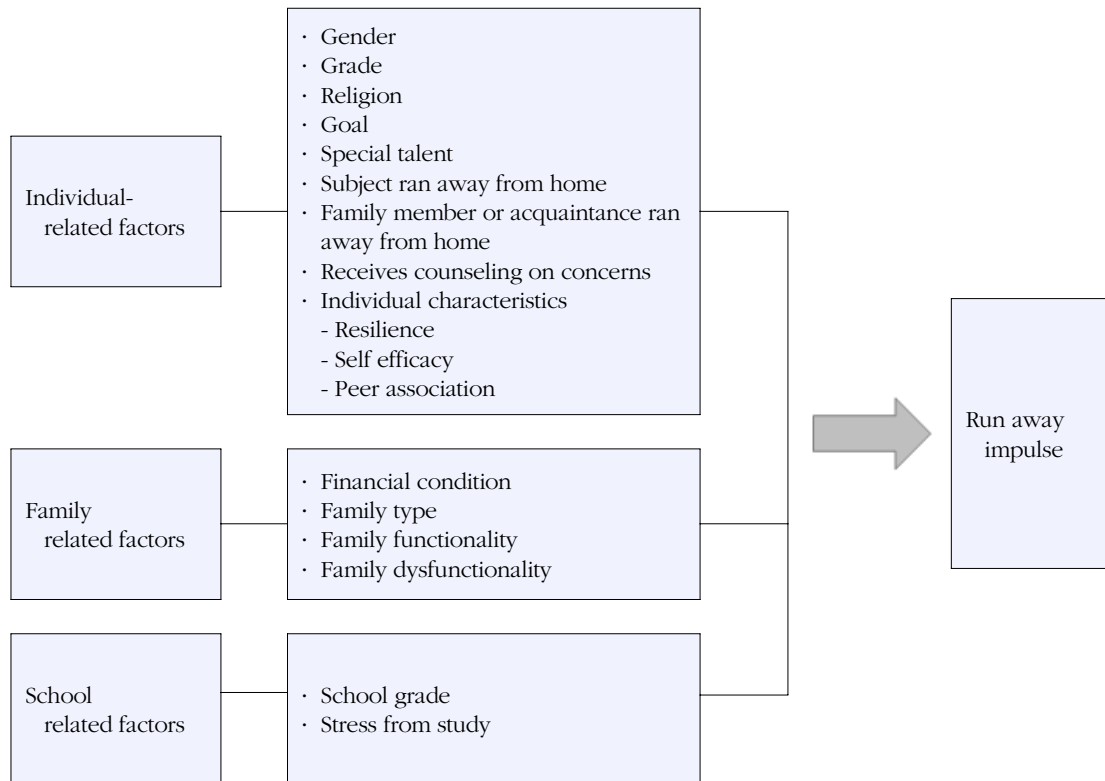


Figure 1. Theoretical framework.



스 상황이나 역경, 비극, 위협, 정신적 충격의 상황 하에서 대처하는 보여주는 긍정적인 행동 적응(Min, 2007)으로 본 연구에서는 Atsushi, Hitoshi, Shinji와 Motoyuki (2003)의 “Resilience Scale”을 Min (2007)이 번안, 수정한 20문항 도구를 사용하였다. 관심과 흥미의 다양성(7문항), 감정조절(7문항), 긍정적 미래 지향성(6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alpha = .912$ 였다.

## 2) 자기효능감 (Self efficacy)

초등학생 아동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가치감이나 능력에 대해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Kim (2004)이 구성한 총 6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에 대해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alpha = .846$ 이었다.

## 3) 가족기능

가족기능이란 가족의 정서적 기능을 중요시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적절히 이루어지는가의 기능성과 역기능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Ji 등 (2002)이 개발한 비행청소년의 가족 관련 질문을 본 연구자가 기능적 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으로 분류하여 예비조사 후 사용하였다. 기능적 가족은 부모와의 대화, 부모의 지지, 가족친밀성, 부모의 관심도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총16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가정환경이 좋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alpha = .945$ 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가족은 총 12문항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부모와의 갈등관계, 엄격한 양육태도, 부부 불화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영역의 성향이 많은 역기능 가족환경임을 의미하며 본 도구의 Cronbach's  $\alpha = .898$ 이었다.

## 4) 학업 스트레스

초등학생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Kim (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학교 안 사건에 관한 스트레스 원 측정도구 중 학업요인 총 8문항

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alpha = .833$ 이었다.

## 5) 고민상담자

초등학생이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제공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Oh (2001)의 연구에서 가족, 친척, 친구, 교사, 이웃어른, 성직자로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를 구분하여 조사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고민 상담자가 있는 경우 유, 없는 경우 무로 응답하게 하였고, 고민 상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중복 표시하도록 하였다.

## 6) 친구지향성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에 대해 청소년들이 갖는 친밀도 및 지향성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Nam (1999)의 도구를 사용하였고, 모두 12문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친구지향성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친구에 대해 가깝고 친밀하게 느끼며 그들의 견해 및 행동에 더욱 많이 동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alpha = .827$ 이었다.

## 4. 자료수집

대상자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0년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2개교의 학교장, 교감, 담임교사에게 연구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허락을 받았으며, 특히 담임교사에게는 알림장 등의 기입방법으로 학부모들에게 연구진행에 대한 공지를 하도록 부탁하였다. 그 후 연구책임자가 직접 연구대상 2개교의 각 교실로 방문하여 학부모에게 연구진행이 공지되었는지의 여부를 담임교사에게 구두로 확인하였고 연구대상자들에게도 부모가 연구진행에 대해 알고 있는지, 참여를 허락하였는지에 대해 구두로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 및 연구참여의 자율성을 설명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지며 연구하는 동안 어떠한 불이익도 받

지 않으며 연구도중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구참여 중단의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발적으로 동의 한 연구대상자들은 설문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직접 자기기입방식으로 작성하였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출 충동 군과 비 가출 충동 군의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각 요인에 대한 차이는  $\chi^2$ -test와 t-test를 각각 실시하였다.
-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가족기능, 학업 스트레스, 친구 지향성 측정도구의 관련성에 대해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가출 충동에 영향 요인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위해 관련요인을 전부 고려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고려되는 요인을 효율적으로 탐지하기 위해 변수 선택 방법에서 앞으로 LR 방법을 사용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관련 요인에 따른 가출 충동의 차이 분석

#### 1) 개인 관련 요인에 따른 가출 충동의 차이 분석

대상자의 개인 관련 요인에 따른 가출 충동의 차이 분석은 Table 1과 같다.

가출 경험, 주변인 중 가출 경험자에 따라 가출 충동 여부의 차이가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밖의 변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경험에 따른 교차 분석에서는 가출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가출 충동을 느끼지 않는 집단은 244명(61.5%), 충동을 느낀 집단 153명(38.5%)으로 나타났고, 가출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충동 없음 5명(14.7%), 충동 있음 29명(85.3%)으로 나타나 가출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가출 충동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주변인 중 가출 경험자가 없는 대상자가 가출 충동을 느낀 경우가 124명(37.1%)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가족, 친척, 친구 중 가출을 경험한 주변인이 있음에 따라 가출 충동여부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또한 가출

충동 군과 비 가출 충동 군에서 고민상담자 존재의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 = .040$ ).

개인특성 중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친구지향성에 따른 가출 충동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친구지향성의 평균 점수를 구하고 평균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t-test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친구지향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 2) 가정 관련 요인에 따른 가출 충동의 차이 분석

대상자의 가정 관련 요인에 따른 가출 충동의 차이 분석은 Table 2와 같다. 가정환경 중 경제 수준에서는 ‘어렵다’와 ‘매우 어렵다’를 ‘어렵다’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경제 수준에 따른 가출 충동의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의 부모님 중 새어머니가 아닌 경우 가출 충동을 느끼지 않은 집단이 251명(58.5%), 가출 충동을 느낀 집단이 178명(41.5%)로 나타났다, 새어머니와 같이 사는 경우 가출 충동이 없음 0명(0.0%), 있음 4명(100.0%)로 나타나 새어머니의 경우에 가출 충동에 차이가 났다( $p = .031$ ). 기능적 가족, 역기능 가족에 따른 가출 충동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분석에서 기능적 가족 및 역기능적 가족 모두 가출 충동에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  $p < .001$ ).

#### 3) 학교 관련 요인에 따른 가출 충동의 차이 분석

대상자의 학교 관련 요인에 따른 가출 충동의 차이 분석은 Table 3과 같다.

학업성적에 따른 가출 충동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업 스트레스는 가출 충동을 느낀 집단과 충동을 느끼지 않은 집단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

### 2.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친구지향성, 가족 기능, 학업 스트레스 상관계수 분석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친구 지향성, 가족 기능, 학업 스트레스의 상관 계수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친구지향성과 역기능적 가족, 친구지향성과 학업 스트레스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 간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 친구 지향성, 기능적 가족은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기능적 가족, 학업 스트레스와도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는 친구 지향성, 기능적 가족에서 양의 관련성을, 역기능적 가족, 학업

Table 1. Chi-square Testing based on Individual-related Factors

(N=433)

Characteristics	Categories	Runaway impulse		p
		No	Yes	
		n (%) or M±SD	n (%) or M±SD	
Gender	Male	132 (62.3)	80 (37.7)	.080
	Female	119 (53.8)	102 (46.2)	
Grade	5	137 (58.1)	99 (41.9)	1.000
	6	114 (57.9)	83 (42.1)	
Religion	None	112 (58.6)	79 (41.4)	.273
	Protestant	85 (55.2)	69 (44.8)	
	Catholic	22 (71.0)	9 (29.0)	
	Buddhism	28 (58.3)	20 (41.7)	
	Ect	2 (28.6)	5 (71.4)	
Goal	None	49 (57.6)	36 (42.4)	1.000
	Yes	201 (57.9)	146 (42.1)	
Special talent	None	91 (61.5)	57 (38.5)	.260
	Yes	157 (55.7)	125 (44.3)	
Subject ran away from home	No	244 (61.5)	153 (38.5)	< .001
	Yes	5 (14.7)	29 (85.3)	
Family member or acquaintance ran away from home	None	210 (62.9)	124 (37.1)	.001
	Parents	4 (40.0)	6 (60.0)	
	Sibling	9 (45.0)	11 (55.0)	
	Friend	25 (37.9)	41 (62.1)	
Receives counseling on concerns	No	2 (22.2)	7 (77.8)	.040
	Yes	243 (58.4)	173 (41.6)	
Resilience		3.7±0.62	3.7±0.59	.514
Self efficacy		3.1±0.56	3.1±0.54	.397
Peer association		3.6±0.66	3.7±0.67	.449

스트레스와는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향성은 기능적 가족과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기능적 가족, 학업 스트레스와는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가족과 학업 스트레스는 양의 관련성이 존재하였다.

### 3. 가출 충동 영향 요인 로지스틱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이나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통계량을 이용한 변수 선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변수 선택 방법은 앞으로 선택, 뒤로 선택, 단계별 선택이 있다. 변수 선택 방법을 사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장점은 공변량의 분산이 매우 커 추정량이 불안한 경우, 공변량들의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는 경우 모형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변수를 제거하여 안정된

모형을 세울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변수에 할당되는 자유도(degree of freedom)를 오차에 포함시켜 검정력(power)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고려되는 요인을 효율적으로 탐지하기 위해 변수 선택 방법 중 앞으로 LR 선택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 방법은 우도함수를 이용한 방법으로 로지스틱 모형의 변수 선택 방법에서 wald방법보다 더욱 타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변수 선택 방법 중 앞으로 LR 방법을 이용하여 가출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실시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Table 5와 같다. 가출 충동의 위험요인은 성별(odds ratio=.475,  $p=.002$ ), 가출 경험(odds ratio=.179,  $p=.002$ ), 기능적 가족 평균(odds ratio=.681,  $p=.024$ ), 역기능적 가족 평균(odds ratio=1.384,  $p=.064$ ), 학업 스트레스 평균(odds ratio=1.425,  $p=.050$ )으로 나타나 성별, 가출 경험, 기능 가

**Table 2.** Chi-square Testing based on Family-related Factors

(N=433)

Characteristics	Categories	Runaway impulse		<i>p</i>
		No	Yes	
		n (%) or M±SD	n (%) or M±SD	
Financial condition	Relatively well off	47 (54.0)	40 (46.0)	.303
	Average	193 (59.8)	130 (40.2)	
	Difficult	10 (45.5)	12 (54.5)	
(Maternal) Grandfather	No	234 (57.4)	174 (42.6)	.210
	Yes	17 (70.8)	7 (29.2)	
(Maternal) Grandmother	No	217 (57.7)	159 (42.3)	.772
	Yes	33 (60.0)	22 (40.0)	
Father	No	16 (51.6)	15 (48.4)	.456
	Yes	235 (58.6)	166 (41.4)	
Stepfather	No	250 (58.0)	181 (42.0)	1.000
	Yes	1 (50.0)	1 (50.0)	
Mother	No	14 (60.9)	9 (39.1)	.832
	Yes	237 (57.9)	172 (42.1)	
Stepmother	No	251 (58.5)	178 (41.5)	.031
	Yes	0 (0.0)	4 (100.0)	
Family functionality		4.3±0.74	4.0±0.79	.001
Family dysfunctionality		1.6±0.79	1.9±1.07	<.001

**Table 3.** Chi-square Testing based on School-related Factors

(N=433)

Variables	Categories	Runaway impulse		<i>p</i>
		No	Yes	
		n (%) or M±SD	n (%) or M±SD	
School grade	91~100	63 (57.3)	47 (42.7)	.456
	81~90	75 (53.6)	65 (46.4)	
	71~80	45 (64.3)	25 (35.7)	
	61~70	23 (60.5)	15 (39.5)	
	≤60	16 (69.6)	7 (30.4)	
Stress from study		2.4±0.66	2.7±0.73	<.001

**Table 4.** Relationships among the Study Variables

(N=433)

Variables	Resilience	Self efficacy	Peer association	Family functionality	Family dysfunctionality
Resilience	1				
Self efficacy	.70 (<.001)	1			
Peer association	.51 (<.001)	.45 (<.001)	1		
Family functionality	.48 (<.001)	.45 (<.001)	.40 (<.001)	1	
Family dysfunctionality	-.14 (.005)	-.13 (.009)	-.03 (.581)	-.36 (<.001)	1
Stress from study	-.23 (<.001)	-.21 (<.001)	-.01 (.908)	-.21 (<.001)	.38 (<.001)



족 평균, 스트레스 평균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이 느끼는 가출 충동의 0.48배로 나타났으며, 가출 경험이 없는 경우가 가출 경험이 있는 경우의 0.18배로 나타났다. 또한 기능적 가족 평균과 학업 스트레스 평균은 점수가 1점 상승 시마다 각각 0.68, 1.43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가출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개인과 관련된 요인으로서는 가출 경험, 성별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가출경험이 없는 초등학생이 평소 가출 충동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이는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가출 충동이 더 높게 나타나고 가출 충동을 더 많이 느끼며 가출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청소년일수록 가출에 대해 허용적 이라고 보고 한 연구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Nam, 2001; Park & Hwang, 2010).

본 연구에서 다른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가출의 경험이 적은 초기 청소년의 경우 막연히 가출을 동경하며 가출에 대한 호기심에서 가출 충동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 번의 가출은 또 다른 가출을 시도할 수 있게 하고 가출 경험이 있는 초기 청소년의 경우 가출에 허용적이 되고 다른 문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출 충동을 더 많이 느끼게 됨으로 가출 행동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번이라도 가출의 경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가출 문제의 해결 위해서는 가출이 시작되는 초기 청소년기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가출 충동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가출이라는 문제행동 경험은 가출 충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문제 행동을 위한 최선의 대책은 예방으로 밝혀졌으므로 가장 효과적인 개입 방안으로 아동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개인의 대처기술 향상 내용이 포함된 가출 예방 프로그램을 학습 단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초기 청소년의 주변인의 가출 경험도 가출 충동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가출 주변인 중 가출 경험자의 유무는 가출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아니지만 주변인 중 가출 경험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청소년들이 가출 충동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Oh (2010)는 친구의 비행 행동이 많을수록 청소년이 가출에 대한 충동이나 경험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고, Chung과 Ann (2001)은 가출 경험이 있는 친구를 가진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가출 충동이 높다고 하였으며 Chung (2000)

도 형제간의 가출이 또 다른 형제의 가출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라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Jun 등 (2010)은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11~13세는 부모와의 애착이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는 효과가 크다고 하였는데, 부모의 가출은 곧 한 부모 가정으로 연결되며 이런 경우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문제행동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한 부모 가정의 경우 학교 교사의 관심과 주의가 더욱 필요하고 그들이 자신과 가정, 사회에 잘 적응하고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을 성취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 관련요인 중 친구지향성 요인은 본 연구결과에서 초기 청소년 가출 충동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Nam (1999)의 연구에서는 친구지향성이 문제행동에 직접적 영향이 있으며 Park과 Hwang (2010)은 친구유대요인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면 가출 충동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친구지향성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며 친구유대가 강한 청소년들은 일단 가출을 하고픈 충동이 강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는 그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본 연구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학업 스트레스와 역기능적 가족과 친구지향성은 부적 효과를 가지는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또래 친구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 전인 초기 청소년 시기부터 비행 친구와의 교류를 차단하거나 또래 친구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성별요인으로 남학생이 가출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Chung과 Ann (2001)의 남학생의 가출 충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여학생의 가출 비율이 더 높다는 연구(Oh, 2010)도 있어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가출 충동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Oh (2010)의 연구에서는 가출 충동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이 느끼는 반면 가출 경험에 있어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성별에 대한 가출 및 가출 충동에 대한 결론을 단정 짓기는 어려우므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결과 최종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고민상담자 유무의 요인이 지지되지 않았으나 가출 충동 군과 비 가출 충동 군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으므로 청소년 시기의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망의 존재는 가출 충동의 보호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Davey, Eaker와 Walters (2003)는 아동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에 낮은 만족감을 보고했을 때,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과 우울, 수면장애 등의 문제를 가질 확률이 높으며, 가출을 비롯한 약물, 성행동 등의 외적 문제 행동에 개입할 가능성은 더 높다고 하였다. Han (2008) 및 Kim과 Kim (2008)은 아동 청소년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망의 유무는 가출 충동과 가출행동을 낮출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가출 선택을 차단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특히 부모나 가족을 비롯하여 주변의 많은 친척, 이웃, 교사들이 자신을 돌보아 주고 있다고 느낄 때, 이는 잠정적인 감시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들 개개인이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정보나 충고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사회적 지지를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문제행동을 차단할 수 있으나 스트레스를 묵인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심리적 불편함을 감소시키려고 하면 가출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우울, 낮은 자기 존중감, 사회적 지지에 대한 낮은 만족감과도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이상의 연구결과는 청소년 가출 충동 문제의 중재에 있어서 상담자로서의 간호기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가정 관련 요인 중 기능적 가족이 초기 청소년의 가출 충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출 충동을 느꼈던 청소년들의 63.0%가 가족을 가출 충동의 제1이유로 꼽은 Nam 등(2007)의 조사보고 및 NYPI (2011)의 청소년 가출 충동의 제1이유는 부모문제라고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청소년 가출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Han, 2008), 부모의 애정과 관심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요인이며(Kim, Kwon, Kim, Lee, & Kim, 2004), 부모애착이 청소년 가출빈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Hong et al., 2010)한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가출 및 가출 충동의 주된 원인은 가족기능과 부모요인임을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초기 청소년 가출 충동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역기능적 가족요인은 최종 로지스틱 회귀 분석결과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많은 논문에서 신체적 학대, 훈육 방식의 불공평성, 훈육 방식의 모순 등 역기능적 가족이 가출 충동 및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부부관계의 갈등이 많을수록 자녀의 가출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야기하며, 부모의 부부관계를 좋지 않다고 지각한 청소년들의 가출 충동이 높다고 하였고(Heo, 2009; Jun et al., 2010; Oh, 2010; Park & Hwang, 2010) 부적절한 가정환경 및 낮은 가족의 심리적 기능이 청소년 가출 뿐 아니라 비행을 유발한다고 하였다(Choi, 2004; Kim, 2004). 본 연구가 기존 연구결과들과 다르게 기능적 가족만이 주요 요인으로 나온 것은 연구대상이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 연구의 대상자는 대부분 중, 고등학생으로 역기능적 가족이 가출 및 가출 충동의 주요 요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로 발달 시기상 또래 집단보다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더욱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능적 가족이 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초기 청소년 시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초기 청소년 시기는 친구보다는 가족, 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므로(Jun et al., 2010) 가출 충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적절한 가족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가정환경은 아동 청소년이 가정에 머물지 못하고 가정 밖으로 내쫓기는 가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최적의 예방과 치료의 장이 될 수 있으므로 아동 청소년의 위기 문제 개입에 있어서는 반드시 가족 사정과 접근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가출 충동을 많이 느끼고 있는 청소년의 가정을 대상으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기능 강화 방안을

**Table 5.** Factors Influencing Runway Impulse

(N=433)

Variables	B	SE	Wals	p	Exp (β)
(Constant)	1.286	1.09	1.406	.236	3.62
Gender	-0.743	0.24	9.528	.002	0.48
Runaway experience	-1.720	0.55	9.693	.002	0.18
Family functionality	-0.385	0.17	5.122	.024	0.68
Family dysfunctionality	0.325	0.18	3.429	.064	1.38
Stress from study	0.354	0.18	3.857	.050	1.43

모색해야 하며 실제 가정에서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부모역할 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

학교 관련 요인으로서는 학업 스트레스가 초등학생 가출 충동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연구대상자가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업 스트레스가 가출 충동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학교 성적 만족은 청소년 가출 충동에 영향이 있으며, 성적과 관련된 불만이 많은 청소년이 가출 충동이 더 높을 뿐 아니라 청소년 가출 충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며,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가출 충동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학업성적이 떨어졌을 때 가출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Kim과 Kim (2008), Oh (2010)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는 부모의 기대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더불어 가출 충동 뿐 아니라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Hong et al., 2010; Kim, 2002)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활동 참여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의 경우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기능적 가족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역기능적 가족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점에 관심을 두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환경이 좋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가정환경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은 학업 스트레스에 긍정적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 (Lee, 2010)에 비추어 비록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은 가출 충동 예측요인으로 지지되지는 않았으나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개입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 성취 경험 제공과 이들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서적 대처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해야 한다.

## 결론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요인과 가출 충동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의 가출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초등학생 가출 충동 영향 요인 중 개인 관련요인은 가출경험, 주변인의 가출경험자 유무, 고민상담자 유무, 가정 관련 요인은 새어머니, 기능적 가족, 역기능적 가족, 학교 관련 요인은 학업 스트레스 요인이었다. 특히 성별, 가출 경험, 기능적 가족, 학업 스트레스가 가출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초등학생의 가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성

별에 따른 특성화 대처 방안 마련, 둘째, 아동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가출 예방 프로그램의 학습 단위 실시, 셋째, 학업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학업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제공 도입, 넷째, 청소년의 가정을 대상으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운영, 다섯째, 고민상담자로서의 학교 간호제공 강화 및 체계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일부 중소도시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국 초등학생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제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폭넓은 연구를 제공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지역을 확대하여 초등학생 대상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청소년 가출 및 비행 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친구지향성 요인은 가출충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그리고 최근 청소년 문제 행동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등의 요인을 추가하여 가출충동의 새로운 변수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 REFERENCES

- Atsushi, O., Hitoshi, N., Shinji, N., & Motoyuki, K. (2003). Construct validity of the adolescent resilience scale. *Psychologica Report*, 93, 1217-1222.
- Choi, H. J. (2004). *Family functioning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f non-delinquent and delinquent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 Chung, H. K. (2000). *A forest model on runaway you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Chung, H. K., & Ann, O. H. (2001). Predicting factors on youth runaway impul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7, 483-493.
- Davey, M., Eaker, D. G., & Walters, L. H. (2003). Resilience processes in adolescents: Personality profiles, self-worth, and coping.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 347-362.
- Han, S. C. (2008). Exploration o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f adolescent runaway.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4(1), 273-298.
- Heo, S. H. (2009).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parents factors on adolescents'; Runaway impul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Hong, S. H., No, U. K., & Park, M. S. (2010). Identifying latent classes in adolescents' runaway frequency changes and testing eco-system variables as determinants of the class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 181-201.
- Ji, S. H., Lee, E. K., Lee, J. E., Choi, S. M., Chung, C. S., & Lee, S. Y. (2002). *Longitudinal study for strategic interventions and preventing delinquency of Adolescents (II)*. Seoul: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 Jun, S. H., Kim, W. K., & Hwang, S. H. (2010). Interactional theory as an approach to adolescent runaways: A partial test of Thornberry's theory. *Studies on Korean Youth*, 21(4), 31-50.
- Kim, K. H., Kwon, H. J., Kim, H. Y., Lee, J. H., & Kim, S. K. (2004). A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high school girls' smoking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1, 339-362.
- Kim, J. S., & Kim, H. A. (2008).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experiences of runaway youths and the runaway impulse.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5, 73-94.
- Kim, S. J. (2002).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the stressors from school on problem behavior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stress coping strateg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Y. J. (2004). *Psychological adjustment for risk factor and protective factor of runaway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J. H., Kim, K. H., Kim, H. Y., & Chung, H. K. (2006). A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high school girls' runaway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3(3), 161-179.
- Lee, S. J. (2002). *The effects of self-concept enhancement program on establishing positive self-concept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y and on the consciousness of classmat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Gyeonggi.
- Lee, S. Y. (2010). *The effects of family-environment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of ego-silience, academic, academic stress, mental heal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ans University, Seoul.
- Min, D. I. (2007).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school life health and ego-resilience on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Republic of Korea. (2010, October 22). *Teenage runaway research news*. Retrieved November 23, 2010, from [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3\\_01.jsp?func=view&currentPage=0&key\\_type=&key=가출&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457858](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3_01.jsp?func=view&currentPage=0&key_type=&key=가출&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457858)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0). *Framework act on juveniles*.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Republic of Korea.
- Nam, H. M. (1999).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self-control and friends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problem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Nam, M. A., Hong, B. S., & Yang, H. J. (2007). *Survey on the runaway adolescents and Korea youth shelter*. Seoul: Korea Youth Shelter Association.
- Nam, Y. O. (2001).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borderline personalities on adolescents' runawa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8, 143-172.
- National Youth Police Institute. (2011, January 17). *Korean survey on the run away of youth and children in 2009*. Retrieved February 10, 2011, from [http://archive.nypi.re.kr/sub.asp?BID=B19&idx=1204&BoardType=view&page=1&Search\\_m=&Search\\_t=&Mcode=B020020](http://archive.nypi.re.kr/sub.asp?BID=B19&idx=1204&BoardType=view&page=1&Search_m=&Search_t=&Mcode=B020020)
- Oh, S. H. (2001). *A study on determinants of adolescents' adaptation in low income broken fami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Oh, S. H. (2010). The study on the eco-systemic variables affecting youth runaway-focus on the runaway impulse and runaway experienc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2, 301-324.
- Park, J. S., & Hwang, S. H. (2010).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runaway impulse influencing adolescents' runawa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10), 1-21.
- Park, S. H. (2010).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ego resilience, failure tolerance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won.